

잡음 끊이지 않는 광주 계림2구역 재개발

새 정비관리업체 선정 일주일 공고 규정 어기고 사흘만 공고 전임 조합장은 수위 구축...새 조합장 선정 과정도 불법 논란 조합원들 집단 민원 제기...동구청, 조합에 "규정 준수" 공문

전 조합장이 10억원대 뇌물수수 등 공금 횡령으로 구속된 광주시 동구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새로운 정비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법 논란이 이...

조합이 관련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신임 조합장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나서자 일부 조합원이 각종 의혹과 함께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급기야는 동구청이 나서 관련 규정을 지킬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23일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계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계림2구역조합)에 행정지도 공문 발송했다. 동구청은 계림2구역조합이 최근 진행한 대의원 총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자) 선정, 조합장 직무대행자 지정 등이 관련 규정과 정관을 지키지 않아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합은 지난 17일 대의회의를 열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합장 장모(51)씨의 해임, 조합장 보궐선임, 이사 보궐선임, 정비업자 선정 등 모두 6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지난 20~22일 3일간 '정비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23일 현장설명회를 연 뒤 입찰을 통해 새로운 정비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는 현장설명회 7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무슨 이유 때문인지 현장설명회 3일 이전에 공고를 한 것이다.

계림2구역조합 대의원 한수영(40)씨는

"당초 단 하루 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열려고 했다가 조합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공고 기간을 3일로 늘렸다"며 "정비업자 선정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데, 입찰공고 단 하루 만에 현장설명회를 하는 것은 특정 업체를 정해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조합장이 정비업자로부터 수

역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돼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전 조합장의 측근들이 또다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임 조합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르면 신임 조합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조합사무소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조합원들에서 등기우편으로 개별고지해야 한다. 또 선거 공고 5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계림2구역조합은 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지난 20일 '조합장·이사 보궐선임

입후보 등록공고'를 낸지 하루만인 21일부터 입후보 등록을 받았다.

동구청은 6건의 안건을 의결한 대의원 회의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장이 해임된 경우 조합의 상근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해야하지만 갑사가 직무를 맡아 대의원회의를 개최했기 때문이다.

계림2구역조합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청의 행정지도 내용에 따라 관련 규정과 법에 맞게 다시 조합장 선임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승강기 갇힌 환자 구조훈련

23일 광주 북구청에서 열린 승강기 사고 대응 종합훈련에서 119구조대원들이 승강기에 갇힌 환자를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업손실 7년 소송끝 승소하고도 보상금 못받은 시민

전남도·여수시 책임 떠넘기기

1년6개월 지급 능력 피해 호소

여수에 사는 한 민원인이 지난 7년 간 전남도와 여수시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 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했지만 이를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보상지급 업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수시는 보상금 지급 업무를 능청 처리, 국민의 혈세로 하루에 100만원씩 수 천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간접강제금은 금지정구 본안판결 등을 통해 인용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민원인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5일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여수 응전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정치망어업(2.5ha) 피해손실보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06년 11월 첫 소송 제기 이후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여수시에 보상금 청구를 했지만 여수시는 A씨의 어장이 조업구역을 이탈하고 규격보다 크게 설치됐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지난 40년간 정치망 어업을 하면서 지난 2013년 조업구역과 관련, 단 한 차례 경미한 경고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A씨는 보상업무가 자연되자 지난해 1월 관련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전남도(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정치망어업 손실보상 재결을 신청하면서 광주지방법

행정법원에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15일 '2005년과 지난해(28억원) 용역보고서 등에 기재된 A씨의 정치망 평균(어획)생산량이 6배 이상 차이가 나 제3의 기간 용역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차례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남도를 상대로 한 간접강제소송에서 보상금 지급 때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4월 1일부터)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전남도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여수시에 간접강제비(8000만원 가량)를 부담할 수 있는냐는 공문을 보냈고 여수시는 이를 받아들였다.

여수시는 전남도의 의견에 따라 제3의 기관에 피해보상 산출을 위한 평균(어획)생산량 용역보고서를 맡겼다. 이 보고서에

선 손실보상금이 15억원 가량 된 것으로 산출됐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보상업무 능력처리를 하면서 민원인만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민원인 A씨는 "7년 만에 법원에서 손실보상금과 관련된 승소를 했는데도, 전남도와 여수시가 1년6개월 이상 보상업무를 미루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다.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은 손실보상금을 낮추기 위한 꼼수"라며 "(3의 기관에서 말은) 용역보고서의 경우 '속시 보고서'처럼 의뢰한 기관에 유리하게 짜맞춘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오는 28일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지난 2005년과 지난해, 올해 등 3개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손실보상 금액과 관련, 결정할 것"이라며 "A씨의 주장대로 보상업무를 능청 처리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 jzgolee@kwangju.co.kr

4500만원 차에 신고 광주 온 대구 할아버지 사연은 치매 80대 "수십년전 은혜 갚아야 해"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지난 20일 오후 9시16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김밥집에 안모(80)씨가 들어섰다. 의자에 앉아 라면을 주문한 안씨는 갑자기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격정됐던 김밥집 주인(여·52)은 "할아버지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건국지구대 임택택·장창원·정종배 경위는 의식이 혼미한 안씨를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이송했다.

식당 주변에서 안씨의 창문이 반쯤 열린 모닝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차량 조수석에 놓인 가방에서 천만원권 수표 4장 등 모두 4500만원 상당의 돈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가방에서 함께 발견된 신용

카드를 추적해 안씨 가족의 연락처를 수소문했다. 안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의 며느리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20일 오후 아버님이 '수십년전 광주에 사시는 분께 신세를 졌는데, 빚을 갚으러 가겠다'라는 통화 이후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다.

21일 오후 안씨는 며느리와 함께 보관 중인 돈을 찾기 위해 건국지구대를 찾았지만 치매 증상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신세를 진 은인을 찾아 돈을 주기 위해 대구에서 직접 운전해 해서 왔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할아버지가 많은 돈을 들고 광주까지 온 이유는 아직까지 모르겠다"며 "빨리 건강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친척에 채용 정보 사전 제공 흥화성 동구부구청장 사직서

광주 동구청장 권한대행 당시 친척에게 채용정보를 사전에 제공한 흥화성 부구청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23일 동구청에 따르면 흥 부구청장이 지난 21일 사직서를 제출해 '지방공무원법 제69조4'에 따라 다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파악 중이다. 동구는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통보 결과에 따라 이달 말까지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흥 부구청장은 당초 다음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공로연수를 갈 수 없다.

또 '감봉 처분 이후 12개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명예퇴직도 신청할 수 없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U대회 대표 선발 '뒀돈' 받은 대학축구연맹 간부 실형 선고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축구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뒀돈을 받은 한국대학축구연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노호성 판사는 광주U대회 한국축구대표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대학축구연맹 간부 양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3214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로 기소된 위모(48)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금품이 3214만원에 달해 사안이 중한데다 진지한 반성이 없고, 특히 체육계 선수 선발 비리의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정책적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1월 중순부터 3월 5일까지 광주U대회 대표 선발과 관련해 학부모인 위씨로부터 3214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술 마시고 택시 탄 공무원, 기사가 깨우자 다짜고짜 주먹질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탄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이 목격자에 도착해서 택시기사가 깨우자 다짜고짜 폭력을 휘둘렀다가 경찰서행.

○...23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 22일 밤 11시55분께 광산구청 앞에 도착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 B(66)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린 데 이어 택시 안에 설치된 카드

결제기도 손으로 뜯어내 망가뜨린 혐의.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목격자에 도착해서 요금을 청구하며 운전기사가 혼들어 깨우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에서 그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왜 생전 처음 본 택시 기사를 때렸겠느냐"며 횡설수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공무원(5급~9급) 27~42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72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67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여 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웨비엔빌 B10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